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사천교육의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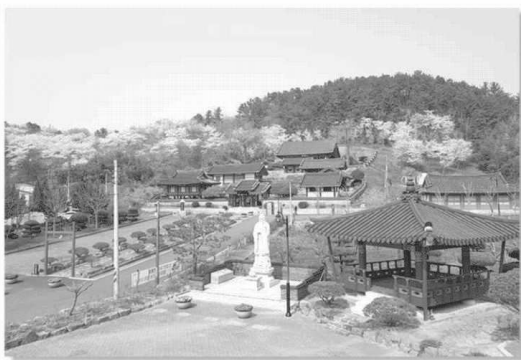
1. 조선시대

가. 향교

향교는 성균관의 축소형으로 지어진 지방의 관학이다.

문묘는 향교와 함께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대표적인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의 배향(配享)관계를 보면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인 공자를 주위(主位)로 남향하고, 복성공(復聖公)·안자(顔子)·술성공(述聖公)·자사자(子思子)를 동에, 종성공(宗聖公)·증자(曾子)·아성공(亞聖公)·맹자(孟子)를 서에 배향하여 10철6현을 동서로 그 후방에 각 8위씩 종향(從享)하였으며, 동서무(東西무)에는 중국 선현 및 우리나라 제현 56위, 합하여 112위를 분향(分享)하였다. 지방의 분묘는 봉안하는 제현의 위폐수에 따라 대설(大設), 중설(中設), 소설(小設)로 구분되는 바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김해와 진주만이 대설이고, 나머지 군·현이므로 중설·소설이다. 봉안위수는 대설위가 130위, 중설위가 52위, 소설위가 38위이다. 문묘향사는 본래 5성을 위시하여 공문(孔門) 10철, 송조(宋朝) 6현(賢), 그리고 동국(東國) 18현을 향사하다가 1949년 유럽대회의 결의에 따라 사천향교와 곤양향교는 5성, 송조 2현, 우리나라 18현을 음력 2, 8월의 상정일(上丁日)을 택하여 2회로 향사하고 있다.

1) 사천향교



- 지정종목: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 소재지: 사천읍 선인리 119번지
- 지정일자: 1983년 8월 6일
- 규모: 3,455m²

사천향교는 조선조 1421년(세종 3)에 창건되어 공립학당으로서 경학을 수강한 것이 효시이다.

1440년(세종 22)에 치성재, 동재, 서재, 명륜당의 건물을 지어 명실공히 향교로서 면모를 갖추어 향리에 면학풍토를 조성시켜 사주(泗州)의 인재를 길러냄과 동시에 감찰사 감독하에 일차 과거시험의 관문인 초시를 치르기도 하였다.

향교는 유학생의 수업과 문묘(文廟)의 성현봉사(聖賢奉仕)로 양분되나 모체가 유교학의 일체 기본이므로 지방관의 지원 하에 유림에서 관찰하였으며 교육제도는 종9품의 훈도가 30명의 교생을 입학시켜 중등학문 과정을 교수시켰다.

사천향교는 향토사적으로 사천 고을의 읍의 터가 지금은 없어진 옥산 부근에 있을 때에 향교의 터도 지금의 정동면 풍정에 있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조선조 세종대에 이르러 사천 읍성이 축성이 되어 읍의 터를 옮겼는데 이 무렵 향교도 이견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다가 1645년(인조 23) 현 위치인 사천읍 선인리 샘골의 성전봉(聖殿峰) 양지쪽에 옮겨져 중건되었다, 1664년(현종 5)에는 안혜원이 대성전을 중건하였다.

사천향교는 자연 경사를 따라 앞쪽 낮은 터엔 강학 공간인 명륜당, 뒤쪽 높은 터엔 제향(祭享) 공간인 대성전을 두어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따르고 있다.

문묘의 향사에 있어서는 몇 번의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최근 2022년까지는 봄 5월 11일(忌辰日)과 가을 9월 28일(誕降日)에 석전대제를 봉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2월과 8월 상정(上丁)에 봉행하기로 하였다.

1975년 2월 5일 문화재보호법 제41조2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1993년 8월 11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20호로 지정되었다.

2009년 7월에 인성교육원이 설립되어 매년 유림 및 관내 학생들에게 유교 경전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유림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예, 문인화를 지도하고 있고, 2016년 5월 11일에는 현성금으로 공자 행교상을 건립하였다. 2017년부터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재활용사업에 응모한 예산으로 매년 3,000여명의 학생과 유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사천향교의 특색 사업 중 하나인 육기예용합체험프로그램(6예: 六禮)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프로그램, 과거시험재현행사 등 유초·중·고등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8월 22일에는 유림들의 현성금으로 600주년 기념석과 천자문 판석, 유향원이 조성되어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사천향교는 각종 경전 강좌가 학생들과 유림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풍화루 음악회 개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향교로 발전하고 있다.

사천향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 1420년(세종 3)에 향학당을 창건하여 경학을 강의함
- 1439년(세종 22)에 치성재 동·서재·명륜당을 건립하여 수학원 학사서재로 개칭
- 1449년(세종 32)에 풍화루(風化樓)를 현 위치에 창건
- 1592년(선조 25)에 왜침 전화로 불에 타 회진됨
- 1654년(인조 23)에 현 위치로 향교 중건(重建)함

가) 사천향교 시설 안내

(1) 대성전

명륜당의 좌측 위 4m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성전은 성현위패봉안소로 향교 내 문묘구역의 중심으로 다른 건물과 비교할 때 가장 우수하고 규모나 구조·양식·의장적인 측면에서도 중심건물로서 그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대지 45평(가로13.5m 세로 11.1m)위에 건물 규모는 정면 5間(11.7m), 측면 3間(9.3m)의 목조 겹처마 맞배지붕을 올린 익공식와가(翼工式瓦家)인데 건평(建坪)은 33坪으로 1645년(인조 23)에 건립되었다.

(2) 명륜당

명륜당은 오륜교화당(五倫教化堂)으로 1439년(세종 22)에 건립되어 두 차례 중수(1978, 1982년)를 거친 실내구조(室內構造)는 다른 건물과 비교할 때 가장 규모가 크고 중앙 대청마루는 강학구역(講學區域), 양익사(兩翼舍) 온돌방은 동절기에 강학구역 및 교관(敎官)의 거처소(居處所)이다. 명륜당의 “명륜(明倫)이란 대개 군자(君子)의 학문을 명륜(明倫)이라고 하고, 학문을 배우고 인간사회(人間社會)의 윤리(倫理)를 밝힌다.”라는 뜻으로 이를 닦는 집을 ‘명륜당(明倫堂)’이라 한다. 향교 교육의 중심적 시설이며 강학구역의 중심 건물로, 공자의 사상을 유생들에게 강론하고 유교 이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다.

(3) 치성재

치성재는 1439년(세종 22)에 건립하여 4차례의 보소(1936년, 1938년, 1970년, 1978년)를 거친 헌관치성소(獻官致誠所)로 정면 3칸(7.8m) 측면 2칸(3.9m)으로 된 목조와가 맞배지붕이며, 2칸은 방이고 1칸은 대청마루(3.9m×2.6m)로 되어 있고 앞부분 길이 7.8m 폭 1.1m의 마루는 완전 개방되어 있다.

(4) 동재(東齋) · 서재(西齋)

1439년(세종 22)에 건립되어 5차례(1915년, 1936년, 1938년, 1970년, 1978년) 중수를 거친 동재와 서재는 유림의 독서실(讀書室)로 야외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는 장소로도 사용되며 동·서재 모두 정면 3칸(7.1m), 측면 1칸(3.4m), 높이 2.5m의 목조 홑처마 맞배 와가 지붕으로 5색 꽃기 단청(丹青)이며 벽체(壁體)는 시멘트 마감, 중앙 대청마루와 양편 출입문은 가로 1.5m 세로 0.75m 목재 격자창살이며 중창문은 양방 정면에 가로 0.8m 세로 0.6m의 규격(規格)이고 사각(四角) 목재 기둥 밑에 화형(花形) 주춧돌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5) 전통문화체험관

향교 경내를 조금 벗어난 28m 우측에 정면 5칸(12.4m) 측면 3칸(5.6m) 목조와가(木造瓦家)건물로 홑처마를 올린 5량 구조 도리형 팔작지붕 건물이다. 1978년 최대경 전교를 비롯한 최갑대 유도회장, 허연 장의 등이 건의하여 당시 경남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였는데 초기에는 제유봉공수직인소(祭儒捧供守直人所) 전사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2018년 국비 보조를 받아 내부를 수리하여 전통문화체험관으로 변경하고 1박 2일 체험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6) 인성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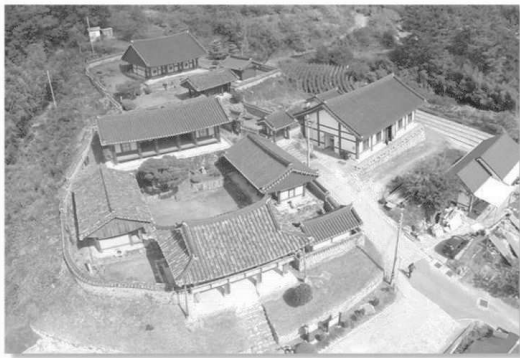
향교의 교육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9년에 건립된 인성교육원은 인성·예절, 서예, 문인화, 한문(고전), 한시, 경전 등의 강학을 통하여 전통문화와 바른 인성과 충효예절 함양 등의 계승발전과 도덕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2022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일시	대상
6기에 함양을 위한 융합 체험교육	1. 6기에 융합체험교육	4월부터 매주 화	유·초·중·고 학생
	2. 향사례시연 및 향사례 경연대회	10월 28일	학생, 학부모, 관광객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1.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학습	4~9월(8회)	가족
	2. 1박 2일 가족사랑 체험학교	5~7월(5회)	가족
	3. 풍화루 음악	9월 12일	유림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3월~11월 매주 수	초등학생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일시	대상
학부모와 함께 하는 서당 교실	1. 인문학 강좌 한시반	4~12월 매주 화	일반인
	2. 경전성독반	4~12월 매주 수	일반인, 학생, 학부모
	3. 토요 서당 교실	4~12월 매주 토	학생, 학부모
	4. 유림교양강좌	4~12월 매주 화	일반인
	5. 과거시험재현행사 (시조짓기, 글짓기)	10월 22일	희망 학생
	6. 과거시험재현행사 (전국경전성독대회)	10월 29일	희망 학생

2) 곤양향교



- 지정종목: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 소재지: 곤양면 송전리 355번지
- 지정일자: 1983년 8월 6일
- 규모: 2,902m²

고려 태조로부터 조선 태종(太宗)때까지 존속했던 곤명현(昆冥縣)이 세종 원년(1418)에 곤남면(昆南郡)으로 승격되어 진주목으로부터 독립되고 그 관할이 곤명(昆明)·서포(西浦)와 하동(河東)의 진교(辰橋)·금남(金南), 그리고 남해군(南海郡)전역이 포함되었다.

이 태조는 즉위년(1392)에 유교의 진흥을 위해 중향교(重鄉校) 전책을 써서 각도의 관찰사에 명하여 흥폐(興廢)로서 지방관의 고과(考課)에 반영한다 하였다. 곤양향교는 세종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나, 곤양면 서고에 소장되어 있던 고문헌의 일실(逸失)로 고증을 찾을 수 없다.

1530년(중종 25) 어득강(魚得江) 군수의 유학 근면시책으로 많은 유사(儒士)를 배출시켜 소과복시(小科복시)에 응시케 하였으며, 유풍이 크게 진작되어 곤양지방은 추노향(鄒魯鄉)이라는 별명까지 따랐다. 1546년(명종 1)에 노정(盧楨)군수가 부임하여 정동(鼎洞)에 文廟(문묘)를 창건하였다. 1663년(현종 4) 박영계 군수가 부임하여 범동(凡洞)으로 이건하고 존성숭유(尊聖崇儒)의 도를 베풀었다. 1808년(순조 2) 신오 군수가 곤양향교를 현 위치(당천)으로 이전하여 건립하였다.

곤양향교는 당시 관학제도상 중 6품의 교수직과 교생 정원이 50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학전(學田) 등 부수시설이 준하였을 것이고, 문묘의 성현 위설은 중설위(中設位)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유(揚儒)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파(政派)의 다툼에 따른 정책의 모순으로 퇴폐성을 드러내어 사족(士族)들의 취학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사학(私學)인 서원발달로 인하여 관학인 향교는 제 구실을 못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향으로 곤양향교도 격하되어 교수가 중 9품의 훈도로 바뀌게 된 것이고 문묘도 소설위(小設位)가 된 것이다.

향교 교육의 연원은 앞서 기술했듯이 고려 인종 5년(1127)에 모든 주(州)에 “학(學)을 널리 도(道)를 가르치라”는 조서(詔書)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니 즉, 유학을 교육의 근본 방침으로 삼고 도는 유도로서 일상생활에 윤리도덕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문묘를 일명 교궁(校宮), 재궁(齋宮)이라 함은 배움과 향사(享祀)에서 으뜸가는 집이라 말함이니 유학 이외는 모두 사학(邪學)·사도(邪道)·난문(亂文)으로 규정되었음을 말한다.

곤양향교의 운영관리는 전교를 비롯하여 장의 15인, 그리고 유도회와 모성계(慕聖契)가 있어 삭망의 분향배(焚香拜)에 임원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춘·추 두 차례에 향사하는 석전제의 초헌관은 유고를 제외하고 고전(告典)에 따라 군수가 참례의 의무를 지고 아헌관·종헌관은 유림에서 인선하여 지금도 제사에 참여하는 이가 100여인에 달하여 전통예풍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향교유도회에서는 1986년부터 정례적으로 중고등학생에게 하절기 방학을 이용, 관의 협조 하에 충효교실을 설치하여 국가관과 생활예절 등의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곤양향교는 숭한 재난으로 여러 차례 자리 옮김을 했다. 1807년(순조 7)에 현 위치인 곤양면 송전리 355번지로 이전되었으며, 건물은 또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21호(1983.08.11. 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곤양향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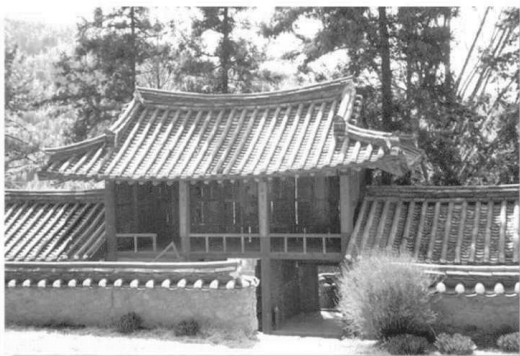
- 1419년(세종 원년) 곤명현이 곤남군으로 격상되어 이조 국시(國是)인 부·군·현에 향교 설치의 의무화에 따라 세종 초에 곤양향교가 설치되었다고 추정된다.
- 1546년(명종 1) 군수 노정(盧楨)이 정동(鼎洞)에 문묘를 창건하였다. 선학후묘(先學後廟)의 지방재원 사정에 따른 목민관의 관심으로 건립되었을 것으로 본다.
- 1600년(선조조) 2월 이상상 군수가 정동에서 범동으로 이건하였고, 현종조(1662) 이기 군수가 다시 정동으로 이건하였다가, 1663년(현종 4)에 군수 박영계(朴永繼)가 범동으로 이건하여 존성숭유지도(尊聖崇儒之道)를 갖추었다.
- 1807년(순조 7) 군수 신오(申晤)와 향유(鄉儒) 강필대(姜必大)의 노력으로 현 위치에 부지를 매입하여 향교를 옮겨 세웠다.

- 1823년(순조 23) 군수 권사규(權思奎)가 유림과 협의하여 관민일체로 대성전, 명륜당, 동, 서재, 풍화루 등의 건물을 중창하여 면모를 일신시켰다.
- 1847년(헌종 13) 풍화루가 소실되어 향유의 모금으로 현 건물을 중창하였다.
- 1867년(고종 4) 불의의 화재로 풍화루가 소실되었다.
- 을사년(1929) 전유사 강우섭(姜禹燮), 장의 이광희(李匡熙), 최인석(崔仁錫)의 희생적 노력과 유림의 협찬으로 현재의 풍화루가 중창되었다.
- 2010년 전교 정도용(鄭道鏞), 유도회장 김원석(金元奭)의 노력과 유림의 염원으로 165㎡의 유림회관을 신축하였다.
- 현재 곤양향교 교궁의 부속 건물로는 입구에서 풍화루(風化樓), 동재(東齋), 서재(西齋), 명륜당(明倫堂), 내삼문(內三門), 제기고(祭器庫), 대성전(大成殿), 유림회관(儒林會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서원

서원(書院)은 성균관, 향교와 함께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성현(聖賢)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이다. 지역 문화를 대표하며 인품이 훌륭한 성현을 본받고 그러한 관리를 양성하는 교육기능과 사학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문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 가운데 뛰어난 선현을 배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교화기능을 하였으며, 이외에 도서를 보관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책의 출판 기능, 지방의 풍속 순화 등의 기능도 하였다.

1) 사천 구계서원



- 지정종목: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 소재지: 사천읍 구암리 두문로 361-17
- 지정일자: 1983년 8월 6일
- 규모: 3,967㎡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만죽산(萬竹山) 기슭에 자리한 구계서원(龜溪書院)에 봉향된 구암(龜岩) 이정(李楨)은 1512년(중종 7)에 출생하여 일찍이 송규암(宋圭庵)에게 사사(師事)하였고 이어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수업교류(修業交流)하였으며, 25세에 등과하여 부제학(副提學)까지 출사(出仕)하였으나,

공명(功名)에 뜻이 없어 관직을 그만 두고 향리로 돌아와 교육에 학문에 힘써 유휘진작(儒風振作)에 힘을 쏟아 많은 후학을 길러 오던 중 1571년(선조 4) 60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구암(龜岩)은 학행(學行)이 당세(當世)를 풍미(風靡)한 대석학(大碩學)이었으므로 유학도의 존경과 숭앙으로 1606년(선조 39)에 사유(士儒)들이 서원을 건립하여 유지(遺志)를 기리던 중 1675년(숙종 원년)에 예조(禮曹)로부터 ‘구계(龜溪)’의 사액(賜額)을 받아 구계서원의 공인을 받았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이 섭정(攝政)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사색당파의 온상 역할을 하는 것이 서원으로 규정하여 서원 철폐령이 내려지게 되자 무고하게 구계서원도 훼괴(毀壞)되고 또한 서원재산도 몰수되어 한때 향사(享事)에 큰 애로를 겪었으나, 1931년에 최연국(崔演國)등 유림들의 노력으로 서원이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남교육사에 의하면 봉향(奉享) 인물로는 문순공 이황(李滉), 부제학 충정공 김덕함(金德諫)으로 기록되었으나 지금은 퇴계 이황, 구암 이정, 김덕함을 봉향하고 있다.

1983년 8월 11일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40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서원에는 퇴계 이황, 이정 선생과 대사헌의 벼슬을 지낸 성옹(醒翁) 김덕함 선생 세 분의 위패를 모신 묘당과 함의재 최간을 중향으로 모시며, 뜰 아래에는 구산 사비를 비롯하여 김덕함, 최관(崔瓘) 두 선생의 기적비(記績碑)가 나란히 서 있고, 또 내삼문(금기문) 밖에는 동재, 서재, 풍영루(風咏樓) 등의 건물이 있다. 그리고 구산사비(龜山祠碑)에 새겨놓은 비명(碑銘)에는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바 있는 양천(楊川)사람 미수 허목(許穆)이 지은 글이 있는데 “명은 물에 근심하였기에 제사하며, 용은 땅에 근심하였기에 제사하노라”라고 하였다.

2) 경백서원



- 지정종목: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 소재지: 용현면 온정2길 42
- 지정일자: 1997년 2월 13일
- 규모: 1,060㎡

경백서원은 사천 경백사(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234호)내에 있으며 비문과 기문에 의하면 1550년경부터 온정마을에 화암재(花巖齋)

라는 학당을 지어 후학을 양성해 오다가 1926년 신상, 신환, 신건과 지방 유림의 발의로 창건되어, 장절공 신승겸, 목은 이색, 운곡 원천석, 불훤재 신현 등 네 분의 신위를 모시고 매년 3월 중정일에 향사를 올리고 있다. 1959년 경백서원과 강당인 영수재를 유림들의 발의로 창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유교인 뿐만 아니라 전 종원이 장절공 신승겸을 비롯하여 세 선생님을 모시는 경모함이요, 순국대의의 위업을 앙양함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승조정신을 함양시켜 오고 있다.

다. 서당(書堂)

유학에 앞섰던 사천시에는 많은 서당이 있었으나 거의 흔적마저 사라져 버렸으므로 현존 서재와 구전되는 학당만이라도 그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 당 명	소재지	건립내역
작도정사 (鵲島精舍)	서포면 외구리 (현존함)	곤양군수 어득강(魚得江)이 이퇴계를 초빙하여 영시(詠詩), 풍월(風月)하였던 곳으로 매년 4월 2일에 차례(茶禮) 봉행함과 동시에 유학강학소로서 많은 사유(士儒)를 배출한 전당이다.
대관대재 (大觀臺齋)	사천읍 구암리 (현재없음)	구암(龜岩) 이정(李楨)이 만년에 향리에 돌아와 후학을 양성한 곳이다.
연강정 (練江亭)	곤명면 금성리 (현존함)	연강정 문후(文後)가 당대의 석학인 문모계(文茅溪), 정동계(鄭桐溪), 오사호(吳思湖), 성부사(成浮查), 박무민(朴無悶), 하겸재(河謙齋) 등과도 교류하여 학문을 넓혀 후학을 가르친 곳이다.
운계정사 (雲溪精舍)	축동면 운계리 (현존함)	강릉인 김희선(金希善)이 건축하여 문종의 자질(子姪) 및 선비의 자를 강학하던 곳으로 이후 학당으로 이조 말까지 지속되었다.
백화정사 (百花精舍)	곤양면 무고리 (현존함)	매서(梅西) 정동명(鄭東明)의 독서소로 지방 유학도를 강학하던 곳이다.
죽천재 (竹川齋)	사남면 죽천리 (현재없음)	해주인 오석선(吳錫善)이 후학을 양성한 곳이다. 융희 2년에 사천군수 오재규(吳在珪)의 죽천재 권유문에 극이찬상(極而贊賞)시켰다.
학산재 (鶴山齋)	축동면 반응리 (현존함)	김해 김씨의 재각으로도 겸하고 유학강도학도 하였다. 사천이 낳은 서예대가 김정(金正)이 이곳에서 수학하였다.
저존재 (箸存齋)	곤명면 송림리 (현존함)	진양 강씨의 재각으로 저존(著存)이라 함은 예기의 효자지도에서 나온 글귀이다. 유생을 합방 초까지 강학하던 곳으로 유교학당으로서 300년 연륜을 가지고 있다.
함의재 (涵義齋)	사천읍 구암리 (현존함)	함의재는 중기봉(重起峯) 밑에 있으며, 함의재 최관(崔權)의 강학지소이다.
무의산정 (武의山亭)	곤양면 무고리 (현존함)	김의곤(金義坤)이 지어 원근의 유생을 양성한 곳이다.
경의재 (敬義齋)	사남면 사촌리 (현존함)	삭녕인 최중곤(崔仲坤)이 건축하여 그 자손이 독서·수학하던 곳이다.

서 당 명	소 재 지	건 립 내 역
대양재 (大養齋)	정동면 풍정리 (현존함)	삭녕인 춘암(春岩) 최효섭(崔孝涉)이 독서를 즐기며 후학을 양성한 곳이다.
적니재 (的尼齋)	정동면 수청리 (현존함)	이락(二樂) 최덕묵(崔德默)이 부봉산 밑에 세운 집으로 자녀들의 강학소이다.
구호재 (龜湖齋)	서포면 구랑리 (현존함)	구호(龜湖) 황우성(黃宇性)이 지은 학당으로 자녀들의 강학소이다.
오사재 (五思齋)	곤명면 심정리 (현존함)	진양 강씨의 문중 도서관이었으나, 향리 유생들을 많이 교육 시켰다. 소학(小學)의 오사(五思)를 본 받고 수학연수하였다.
산호정 (山湖亭)	곤명면 본촌리 (현존함)	선산인(善山人) 김월산(金月山) 김명호(金明湖) 형제의 독서소로 지방 유학도를 강학하였다.
환덕재 (還德齋)	곤양면 환덕리 (현존함)	환덕리 일원의 유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친 곳이다
사남서재 (泗南書齋)	사남면 화전리 (현재없음)	귀룡산 밑에 세워진 촌락합동 서당으로서 유학도를 가르친 곳이다.
화암재 (花巖齋)	용현면 온정리	화암처사 신약(申禎)이 학당을 건립하여 유생을 양성하던 곳으로 경백서원의 전신이다.
은구재 (隱求齋)	곤명면 은사리 (현재없음)	곤명면 은사리의 유학도를 강학하였다. 유암 이후림(李厚林)이 세종 태봉산하(世宗胎封山下)에 창건하여 강학한 곳이다.
화수재 (花樹齋)	곤명면 마곡리	진양 강씨의 선현 추모소이다. 문중의 자질과 인근 소년들에게 한학을 수강하였다.
일우당 (一愚堂)	곤명면 옥동	진양인 일우(一愚) 정석래(鄭錫來)의 만년 장수(臧修)의 곳이며 자손들의 독서소이다.

사천군 지역에는 군·현의 소재지에 관학이 설치되어 일찍부터 서원과 서당이 생겼으나 삼천포 지역은 문선면·남면·남양면 등으로 있으면서 관학(官學)이나 사학(私學)인 서당이 뒤늦게 생겼다.

이러던 중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풍이 시작되는 시기에 개성(開城)에서 말문리(末文里)로 이주(移住)해 온 손억년(孫億年)은 뒤에 또 이주해 온 손종일(孫宗一), 강환주(姜煥周)과 더불어 서재(書齋)를 개설키로 하고 1770년(영조 46)경 지금의 노산공원에 호연재를 창건했다.

호연재는 인의와 도덕을 학문의 지표로 삼아 인재양성에 힘을 다하게 되었다. 노산공원에 세워진 호연재는 삼천포 지역의 대표적인 서재였다. 그리고 오위(五衛)에서 부사과(副司果)를 지낸 강환주(姜煥周)가 훈장이 되어 많은 문사들을 배출하니 누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재흠(姜載欽), 삼우(三愚) 강인황(姜仁璜), 국산(菊山) 정창한(鄭昌翰), 운전(雲田) 박봉진(朴鳳鎭), 여일(汝一) 박유진(朴有珍)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강인황은 와룡산기(臥龍山記), 죽서루기(竹西樓記), 죽리재기(竹里齋記)를 남겼고 박유진은 방랑시인 샷갓으로 유명한 김병연(金炳淵)의 시우가 되어 많은 시문(詩文)을 남겼다고 한다.

또 고종 때의 훈장이던 운유 고제남(高濟南)은 쌍양사(雙陽社)라는 시사(요즈음의 시 동문회)를 조직하여 이 고장을 더욱 더 빛내고 그 이름을 크게 떨쳤다고 한다.

조선시대 말기에 생긴 삼천포 지역의 서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명	서재명	마을명	서재명
서리(西里)	경운재(景雲齋)	이치리(梨峙里)	용강재(龍江齋)
동리(東里)	용남재(龍南齋)	동림리(東林里)	요산재(樂山齋)
노산(魯山)	호연재(浩然齋)	대방리(大芳里)	용현재(龍見齋)
불당(佛堂)	불리당재(佛里堂齋)	실안리(實安里)	호상재(湖上齋)
동금리(東錦里)	연강재(練江齋)	송포리(松圃里)	의미재(義薇齋)
서금리(西錦里)	노양재(魯陽齋)	벽동리(碧洞里)	양진재(養眞齋)
별리(閼里)	벽남재(碧南齋)	대포리(大圃里)	용서재(龍西齋)
향촌리(香村里)	향호재(香湖齋)	신수도(新樹島)	관랑재(觀浪齋)
사등리(沙登里)	사등재(沙登齋)	늑도(勒島)	호연재(湖然齋)
궁지리(宮旨里)	석천재(石泉齋)		

이상의 서당들중에 손억년(孫億年) 등이 설립한 호연재(노산공원내 소재)는 이 지방 서당의 대표적인 서재이면서 뒷날 수남(洙南), 문선(文善)의 사립보흥학교(私立普興學校)로 사용되다가 삼천포공립보통학교로 맥을 이었으며, 2008년 사천시가 원형을 복원하여 충·효·예의 학습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 호연재 >

라. 기술교육

공장(工匠)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공장(京工匠)과 외공장(外工匠)으로 구분한다. 경공장은 공조(工曹) 및 봉상사(奉常寺), 내의원(內醫院), 상의원(尙醫院), 군기사(軍器寺)로 되어 있다. 사천(私踐)은 공장에 소속되지 못하였고, 공장이 나이 60세가

되면 역(役)을 면하였다. 조선시대 형식적인 기술교육은 대체로 잡과로 불린 역학(譯學), 율학(律學), 의학(醫學),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 산학(算學), 화학(化學), 악생도류(樂生道流) 등인데 소관된 각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과거(科擧)에 시취(試取)하여 자격을 주어서 등용시켰다.

시취(試取)한 특수과목에 대한 임관시험으로 교육받고 있는 중인(中人)계급의 자제들이 응시한다. 그리고 이들 공장들의 사회적 신분은 낮았으나 그들의 학문과 기술은 경사(經史) 중심의 유학(儒學)보다는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청되었다.

2. 근대시대

가. 개화기의 사천교육

조선시대로 출발하면서 사천은 문향(文鄕)으로 유학 진흥의 온상이었고 영남일원은 퇴계(退溪)·남명(南冥)의 대학자 배출로 빛나는 전통과 학풍(學風)을 이어 나가게끔 되었다. 그러나 당쟁은 학문과 경륜을 외면하고 자파일색으로 되돌아갔으며 중앙의 훈숙은 노론(老論)이 중심이 되는데 비하여 영남지방의 남인계(南人系)는 격리상태에 빠져 남명(南冥) 조식(曹植) 문하의 이른바 사십팔가(四十八家), 즉 오늘날의 서부 경남에 거주했던 사족(士族)들은 인조반정(仁祖反正)이후 정인홍(鄭仁弘)이 실각된 뒤에는 완전히 벼슬길이 끊어져 토호(土豪)의 명문도 여러 대(代)에 걸쳐 벼슬길을 나서지 못하니 가문의 권위나 경제적 기반이 위축일로에 들어갔다.

순조(純組) 이후에 나타난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관료의 부패, 타락은 민중들에게 수탈의 도를 넘어 무한 수탈로 바뀌자 이에 격분한 철종(哲宗) 13년(1862년)에 진주의 초근민란(樵軍民亂), 대구의 동학(東學) 발생 등에 일부 유림이 참여하였고, 이는 중앙의 영남 배척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때 사천관내에는 4개의 사립학교가 있었으며 삼천포의 1905년 4월 3일에 설립된 광명의숙(光明義塾)과 사천의 명달학교(溟達學校), 곤양의 계명학교(繼明學校), 사남의 죽천재학교(竹川齋學校)가 신문명 교육을 실시한 곳이다.

나. 일제강점기의 사천교육

1) 항일 학생운동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무렵 사천지역과 경남지역에는 학생저항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동래, 구포, 학생의 투쟁, 범어사 학생의 투쟁, 부산 학생의 투쟁, 진

주농업학교 학생의 투쟁 운동 등이 사천지역의 두드러진 학생저항 운동으로 민족사 발전에 뚜렷하게 이바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반일의식은 일제식민 정책의 차별 교육에 울분을 참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사천에는 중등교육기관이 없고 인근 진주에서 학생들이 수학하였기 때문에 진주의 항일 학생운동에 김경집(진주농고 항일 운동), 정한영(진주고보 사건), 이용호(진주중학교 신봉(神棚)사건) 등이 사천 출신의 학생으로 활동하였다.

2) 일제강점기 학교설립 상황

교육령은 크게 4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 제2차 개정교육령(1922년), 제3차 개정교육령(1938년), 제4차 개정교육령(1942년) 등과 같이 교육령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일본 교육정책의 전환과 사회정세의 즉각적인 반영이었다. 처음에는 되도록 정도를 낮추는데 힘썼으며, 사내(寺內: 데라우치) 총독의 실용주의를 내건 식민지 정책은 재등(齋藤: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책으로 바뀌고 교육의 연한도 연장되었다. 그 후 ‘내선일체(內鮮一體)·동근동조(同根同祖)’를 내건 결과는 한글 폐지에까지 이르렀으며, 마침내 군국주의적 교육을 지향하고 황국신민(皇國臣民)의 배양에 힘썼다.

당시 사천 지역에 설립된 학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연월일	학 교 명	소 재 지	비 고
1911.06.01.	사천공립보통학교	사천읍 선인리 577	구. 사립 명달(명달)학교
1911.06.01.	곤양공립보통학교	곤양면 성내리 18	구. 사립곤양학교
1911.09.01.	사남공립보통학교	사남면 죽천리 598	구 사립사천학교
1917.03.12.	삼천포공립보통학교	삼천포면 선구리 112	구. 삼천포강습소
1924.04.19.	서포공립보통학교	서포면 구평리 725	
1924.04.19.	곤명공립보통학교	곤명면 송림리 89	
1926.10.05.	용현공립보통학교	용현면 송지리 186	
1928.05.01.	축동공립보통학교	축동면 길평리 464	
1928.05.01.	남양공립보통학교	남양면 죽림리 770-1	
1930.	사립광명학원	곤명면 봉계리	설립자: 최범술
1931.09.10.	정동공립보통학교	정동면 대곡리 290	
1933.	불교전수학원	곤명면 용산리(다솔사)	설립자: 최범술
1934.03.31.	건흥공립보통학교	곤양면 검정리 86	
1934.03.31.	가천간이보통학교	사남면 가천리 98-1	1943. 가천국민학교인가

설립연월일	학 교 명	소 재 지	비 고
1936.04.01.	금성간이학교	곤명면 금성리	완사국민학교전신
1938.03.31.	사천공립농업전수학교	구 군청농회관 건잠장	
1938.03.31.	궁지간이학교	봉남동 481	삼천포일출소학교부설 1946. 용산국민학교개교
1938.05.13.	금진공립보통학교	서포면 금진리 442	1943. 금진국민학교인가
1939.05.14.	구호간이학교	축동면 구호리 76	1944. 구호국민학교인가
1940.	실안간이학교	실안동 442	1943. 실안국민학교인가
1942.	통양간이학교	용현면 통양리 108	1945. 선진공립국민학교개명
1944.03.31.	은사공립국민학교	곤명면 은사리 153	
1944.04.01.	신수도공립국민학교	신수동 220	
1944.04.01.	완사공립국민학교	곤명면 신흥리 335	
1944.04.01.	늑도공립국민학교	늑도동 18	

3) 사천교육의 선각자들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大院君)의 섭정으로 정치적인 혁신이 이루어져 전국의 서원(書院)이 철폐되고 묵은 폐습을 바로잡아 지방적 차별과 계급적 차별을 없애려고 하였다.

외국의 문물(文物)을 들여오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또한 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급해진 것이 외국어였으므로 그 필요성에서 외국인을 초빙하여 세운 것이 육영공원(育英公院)이었다.

이후 서양의 선교사(宣敎師)들에 의해 사학이 서울에만 설립되었으며 지방의 교육은 소외되었다.

따라서 지방의 교육은 몇 사람의 선각자(宣覺者)나 독지가(篤志家)들에 의해 신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사천지역에도 밀려와서 삼천포지역의 선각자 박진규(朴鎭圭), 이경호(李慶鎬), 장응상(張應相), 채정희(蔡楨熙) 등에 의해 신교육운동이 일어났다.

그들은 우선 신교육운동을 위해 사재(私財)를 기꺼이 내어 던졌고 유지(有志)들을 찾아서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박진규는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주역인 개화파(開化派)의 일원이어서 한때는 투옥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출옥하여 삼천포지역에 내려와 신교육운동을 선창(先唱)하게 되었다.

가) 사립보흥학교

사립보흥학교(私立普興學校)는 개화기 무렵 삼천포지역 선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장인 장응상(張應相)이 노산(魯山)의 호연재(浩然齋)를 개조하여 신 학문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이 학교를 처음에는 암흑에서 광명을 찾자는 뜻에서 광명의숙(光明義塾)이라 하였다.

이 광명의숙은 같은 개화동지(開化同志)인 채정희(蔡楨熙)의 적극적인 협조와 남양지신학교(南陽知新學校)에 자극을 받은 수남(洙南), 문선(文善) 양 면민들의 호응으로 뒤에 사립보흥학교(私立普興學校)로 되었다. 이 사립보흥학교가 삼천포강습소(三千浦講習所)로 되었다가 1917년 3월 12일 삼천포공립보통학교로 바뀌고 뒤에 삼천포초등학교로 이름을 고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나) 남양지신학교

삼천포지역의 신교육의 효시는 삼천포초등학교의 전신인 삼천포사립보흥학교이며 그 뒤에 남양에서 박진규, 이경호 등에 의해 설립한 남양지신학교(南陽知新學校)이다. 이때가 고종황제가 승하한 다음 해인 1920년이었고 안창호, 여운형 등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만주에 광복군 사령부가 조직되던 해였다.

박진규가 사비로 남양지신학교를 설립했으나 1년 만에 일본인들은 사립학교란 이유로 폐쇄시키고 말았다. 이에 격분한 남양면민은 1922년(대정 11) 배움을 위한 학교 설립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여 같은 해 다시 유지들이 마음을 합하여 양성적인 학교로서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하여 남양면 사립강습회 및 죽림 진명야학회를 개설하여 학생모집을 시작하였다.

1922년 11월 개학을 하고서 그 때부터 인가운동을 시작하였다. 오랜 고생 끝에 힘이 약한 상황에서 하는 신학문운동이라 일본인들이 인가를 거부하자 1927년 7월 1일 다시 기성회를 개편하여 이승징(李承徵)을 회장으로 하여 진명학교 인가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1928년 3월 31일 남양공립보통학교가 설립인가 되었으며 이 때의 임내 진명학교는 초가집 2개 교실로써 초라한 시설이었다. 초대 교장은 삼천포공립보통학교 5대 교장인 포부겸길(浦部謙吉)이 겸직으로 부임하여 임내 진명야학은 1928년 4월 11일 정식학교로서 개교식 및 교장을 임명하여 부임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1일에 현재의 죽림동 770번지 1로 이전하게 되니 남양의 교육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신학교에서 진명야학교로 이어 남양공립보통학교로 이어져 남양중학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다) 광명학원

광명학원(光明學院)은 1930년에 사천군 곤명면 봉계리에 최범술(崔凡述)이 세운 사설학원으로 학과는 조선어, 일본어, 조선역사 등이 주였고 문맹퇴치와 자주정신을 고취하는 학풍을 조성하였다.

교사로는 전 예술원 원장 김동리(金東里), 신아통신사 사장 이상권(李相權)이 담당하였는데 일본국가 ‘기미가요’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37년에 폐교 조치되었는데 당시에는 학생수가 상당하였다 한다.

라) 불교전수학원

불교전수학원(佛敎專修學院)은 1933년에 사천군 곤명면 용산리(다솔사 대양루)에 최범술이 개설한 불교전수학원으로 민족정신 함양에 교육목적을 두고 설립하였다. 강사진으로는 항일독립운동의 충추적 역할을 한 인물인 김범부(金凡夫), 김법린(金法麟), 최범술, 문영빈(文永彬) 등이었고 광복 후 혼란기에는 민족운동의 정립교육에 힘쓴 바 있다.

4) 야학교육

사천 지역의 야학교육은 1911년에 사천공립보통학교(사천면), 사남 지역에 사남공립보통학교, 곤양면 서부 지역에 곤양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고 삼천포 지역에는 구 삼천포강습소(사립보흥학교)를 공립학교로 대체하였다.

이 보다 앞서 사천면에는 명달(明達)학교가 사립으로 건립되어 있었고 사남 지역에는 사립사천학교가, 서부 3면지역에는 곤양사립학교가 사학을 운영하였다. 삼천포 지역에는 일출소학교(日出小學校)라는 일본식 교명을 사용하였다, 또 남양면 지역에는 1920년 남양지신학교가 사립으로 설립되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교가 되었다.

이밖에도 1개면 1학교의 교육령에 따라 각 면에는 앞의 학교 일람표처럼 많은 학교가 간이학교나 분교형식으로 문을 열어 지금의 초등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일제 때까지만 하여도 사천 관내에는 중등교육 과정의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근 진주나 부산 등지로 유학을 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민학교를 마치면 웬만한 집안이 아니고서는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는 국민학교 교육과정조차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본다.

이러한 실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야학운동의 차원(次元)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가) 진명야학회(進明夜學會)

진명야학회는 생활이 어려워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근로(勤勞) 청소년을 위하여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의지를 심어주고 배움의 길을 열어줄 목적으로 삼천포공립 보통학교의 동창회에서 1910년 후반에 설립한 야학회이다.

이 야학교는 동창회원들이 의무적으로 순번을 정하여 가르치고 그 가운데 능히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서 전임(專任)토록 하였는데, 이것이 삼천포지역의 야학운동의 시작이었다.

나) 노동야학교(勞動夜學校)

삼천포청년회가 노산의 보흥학교(普興學校) 자리에서 1920년대 후반 미취학 청소년을 위해 설립한 것이 이 노동야학교이다. 이 노동야학교는 교가(校歌)도 지어서 불렀으며 독서회(讀書會)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나 일본 경찰 요시찰 대상이 되어 감시를 받아오다가 마침내 건물이 철거되고 말았다.

다) 남양진명학교

남양의 임내천변에 초가지붕의 진명야학교가 세워진 것은 남양지신학교가 일본인들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쇄되자 그 다음해인 1921년 11월 다시 세운 학교이다.

진명야학교는 마을 청년인 임응주, 이영주 두 사람에 의해 세워져 학교의 이름도 삼천포공립보통학교의 동창회가 세운 진명야학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922년 11월 개학을 하고서 그 때부터 인가운동을 벌였으나 허가 없는 단체라 하여 인가를 얻지 못하고 거부를 당하자 1927년 7월 1일 기성회를 개편하여 이승징을 회장으로 하여 진명학교 인가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결과 1928년 3월 31일 남양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남양초등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학교설립에 공이 많은 임응주, 이영주의 교육공적 기념비를 1938년 임내마을 청년단에서 공적을 새겨 죽림동 569번지 7 숲 안 뜰에 세웠는데 지금도 그 비가 서 있다.

3. 대한민국

가. 교육과정 변천사

1) 제1차 교육과정 이전의 시기

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의 시기(1945~1946)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은 교육 분야에서 일본 제국주의적 색채를 제거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반 명령 제4호’를 발표하여 1945년 9월 24일부터 모든 공립국민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하였으며, 10월 1일부터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도 수업을 시작하게 하였다. 군정청 학무국에서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을 통해 초·중등학교 교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표를 시달하였다. 이 교육방침은 새로운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해 수신과 폐지, 공민과 신설, 국어와 구사 교육 내용 변경 등 일본 제국주의적 색채를 없애고 신생 국가로서 새로운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나) 교수요목기(1946~1954)

교수요목기는 교수요목이 시달·적용된 시기였다. 교수요목이란 교과별로 가르칠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한 것이었다. 이때의 교수요목은 교육과정의 총론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이념, 목적, 운영상의 유의점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교과에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고,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인 ‘홍익인간’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애족 교육을 강조하였다.

국민학교는 공민, 역사, 지리, 직업, 자연관찰(1~3학년)을 종합하여 사회생활과를 신설하였다. 중등학교 부분에서는 국어와 영어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수학과 이과의 교수요목은 제목만을 열거하였다. 중등학교 교과 과정표를 중학교 1~3학년, 4~6학년으로 구분하여 편제하고, 사회생활과를 신설하였으며, 체육과 보건을 ‘체육·보건’으로 통합하였고, 필수와 선택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수요목기 교과서>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문교부령 제35호)를 제정,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으로서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과과정의 시기 또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시기라고도 한다. 이때의 교육과정은 지적인 체계가 중심이 되어 있기는 하나 생활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차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첫째, 현실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사회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정부수립 후 개선 향상시킬 사회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내용은 적절, 필수 최소량이라야 함을 밝혀 지적 체계와 국가 수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넷째, 반공교육, 동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특별활동 시간을 배당하여 전인교육을 지향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제2차 교육과정 시기는 1963년 2월 15일(문교부령 제119호)로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여 1973년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다시 개정할 때까지를 말한다. 이때 교육과정은 개념을 교과간 비교적 횡적인 관련이 결여된 일군의 교수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개념상 '생활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 특징으로

첫째, 교육과정내용면에서 자주성과,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과 기술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구체화된 학교 교육의 일반목표로 개인적인 가치의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32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개념의 이해와 지식 구조적 학습 및 탐구 능력을 중시한 이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사조를 받아 들였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적 있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지니고 있다. 제2차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면서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과정의 조직으로서의 브루너(Bruner.J.S)의 주장을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해결력을 기르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과 함께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 협동정신, 국민정신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5)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24호로 개정된 제4차 교육과정은 문교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던 종래의 방식을 벗어나 문교부장관이 교육개발원에 개발과제를 위탁하여 기초연구와 총론, 각론 시안을 개발하는 연구의 형태를 도입하였다는 것이 변화라 할 수 있다.

교육개발활동은 보고서를 통해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면서 단일한 교육 사고나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3차 교육과정이 지닌 학습 내용의 과다,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 교육 기초 및 일반교육의 소홀, 전인교육 및 인간교육의 미흡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지식의 학문성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적 유용성 면에서 적합하도록 정선하고 그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보완,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 계획 추진,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등을 개정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앞의 교과과정 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의 입장이나 접근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의 정신과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학문적인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교육과정의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초교육의 강화,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미래

사회 대비 교육 강조, 교육과정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부분 개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1987년 6월 30일(문교부고시 제87-9호)로 개정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문서화된 개괄적인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단일한 교육 사고나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정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가진다.

둘째,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가진다.

개정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초교육의 강화

둘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강화



<제5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7)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은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재량 권한을 확대하였다.

1992년 9월 30일(교육부고시 제1992-16호)로 개정된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시대적, 학문적, 개인적인 변화와 교육 수요의 요구에 따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체제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시·도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인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하여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법규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1992년 6월 30일 중학교 교육과정 고시
- 1992년 9월 30일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 1992년 10월 30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6차 교육과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1, 2학년 1996년 3월 1일부터 3, 4학년 1997년 3월 1일부터 5, 6학년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교과서와 지도서 등의 교과용도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교육을 강화하였다.
- 둘째, 저학년의 통합 교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셋째, 고학년 수업 시간을 감축하였다.
- 넷째, 생활의 기초 기능과 태도 교육을 강화하였다.
- 다섯째, 학교 재량시간을 신설하였다.
- 여섯째, 산수를 수학과로 교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7)

1996년 2월 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체제에 의한 교육과정 편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셋째,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 및 구체적 내용제시를 최소화한다.

넷째, 교육과정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교육과정 배경요인은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 산업, 취업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학교 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교육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의 교육과정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체제가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의 경영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학문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주어지는 교육과정의’의 틀에 안주해 있기보다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여 나아가는 의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7차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첫째,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둘째,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셋째,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넷째,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다섯째, 민주 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지향하도록 했다.

구성 방침을 살펴보면

- 첫째,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육성한다.
 - 둘째,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 넷째, 교육 내용 방법을 다양화한다.
 - 다섯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여섯째,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한다.
- 7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심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 둘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 셋째, 재량활동을 신설 확대한다.
 - 넷째, 학습량 최저화와 수준을 조정한다.
 - 다섯째,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한다.
 - 여섯째, 창의성 정보 능력을 배양한다.

국민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기초·기본 교육을 받은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하여 학년제 개념에 의하여 각 학년별 최소 수업 시간을 제시하였다.

수업 시간 수를 주당 평균 시간 수를 표시하지 않고 연간 최소 시간 수로 제시함으로써 교과 특성, 학교의 실정, 계절 등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편성·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10과목 내외(초등학교)로 감축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9) 2007 개정 교육과정기(2007~2009)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어 시행된 시기이다. 이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제7차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및 교과 교육 내용의 개선,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일부 조정 등의 필요로 인하여 개정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일시적, 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사회의 다원화 및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시 개정되었다.

개정의 중점으로는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적극 반영, 수준별 교육과정을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교과별 교과내용 적정화 도모, 주 5일 수업제의 월 2회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일부 조정 등이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 공통으로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34주를 기준으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및 학년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총 수업 시수로 제시하였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10) 2009 개정 교육과정기(2009~2015)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어 시행된 시기이다. 개정의 방향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최대 8개)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도입을 통한 교과 외 활동 강화,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수준별·영역별 재구조화, 과목(교과군)별 20% 자율 증감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명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으로 축소하여 의무교육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였고, 교과군과 학년군 도입을 통해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1학년도 총론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교과교육과정은 2011년 8월 9일에 고시되어 적용되었다. 그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시, 베트남어 교육과정 신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 고교 교과 편제 수정, 사회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 인성교육을 강화한 초·중등학교 교

육과정 부분 개정,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규정 신설,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 일반고 자율성 강화 및 역사 교육·논술 교육 강화 등 수시로 개정·고시되었다.

11) 2015 개정 교육과정기(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어 시행된 시기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문·이과 통합 논의, 학교 현장의 교육의 실태, 이전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관련된 문제의식 등을 배경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개정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총론의 편제 개편보다는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초소양교육 강화,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발,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개발에 강조점을 두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총론과 각론을 동시에 개정·고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시, 부칙조항 교육과정 적용시기 중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적용시기, 고시 제 2015-80호에서 추가된 부분 삭제, 부칙조항 교육과정 적용시기 중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적용시기 2020.03.01 추가 등 수시로 개정·고시되었다.

나. 교육정책 변천사

1) 수업개선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교실 수업은 많은 변화를 보인다. 교수 요목기(1946~1954)부터 제4차 교육과정(1981~1987)까지는 지식전달이나 교과, 경험, 학문 중심의 수업이었다면 제5차 교육과정(1987~1992)부터는 방법 중심의 수업 형태를 강조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2009~2015) 시기부터는 배움 중심 수업을 강조하며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 주입하는 방법에서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연계를 강조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배움 중심 수업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행복학교 운영을 통한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 방안이다. 사천에서는 현재 학교와 마을을 잇는 사천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며 행복학교(8곳), 행복맞이학교(3곳), 행복학교연구회 등을 지원하고 있고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함께 만

들어 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독서교육

학교 독서교육의 시작은 학교 도서관 구축으로부터 출발하여 1950년대부터 선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60년대 초에는 경남의 중·고교 대부분이 도서관을 보유하게 되었고 전국 1위의 장서 수, 학생 1인당 도서 수 등을 기록했다. 그에 비해 70~80년대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독서교육이 소홀해지게 되고 독서교육의 필요성에 비해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독서교육의 부흥은 2003년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2012년까지 대부분의 학교 도서관을 개선했고, 2013년 이후부터는 노후 시설 개선 위주로 도서관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 도서관 장서 확충 사업이 2008년부터 이루어지고 공공도서관을 연계한 학교 도서관 지원을 통해 독서교육은 더욱 발전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을 적극 추진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독서 동아리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및 ‘지혜의 바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복합독서문화공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천에서도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 독서 동아리 운영 활성화, e-NIE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 사업으로 계획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책 읽기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3) 인성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은 심각해진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키우게 했고 이로 인해 2013년 교육부가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부각되었다. 인성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바른 사람됨’에 두고 학년별 인성교육 인정도서를 개발 보급하여 교육하였고,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는 차원의 친구사랑 운동을 펼쳐 매년 ‘친구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지역의 향교 방문이나 예절실 운영 등 효제 실천 교육과 밥상머리 예절교육도 함께 강조되었다. 한시적으로 2011년 경남 특색과제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를 선정해 이와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 경남 및 사천 인성교육의 핵심은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문화 개선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인성 및 감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회복적 생활 교육과 상

담 활동 강화'이다.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을 위해 연수 및 지원단 운영, 또래상담 및 컨설팅단 운영은 물론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협업을 통해서도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4)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 시작되는 안전교육으로 안전 기초를 마련하고 안전에 대한 인프라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거나 2018년에 개관한 경상남도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스쿨존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에 사천에서도 몸으로 익히는 안전교육 강화, 안전한 등하굣길 및 건강한 학교 공간 구축, 미세먼지 불안 없는 안전학교 조성, 안전한 실내외 교육환경 조성, 체계적인 학교 시설물 안전성 강화 등 안전에 관한 5가지 정책을 내걸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5) 과학교육

정부수립 전후로 시작된 과학교육은 처음 교수요목기부터 제2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50~60년대까지 시설을 확충하고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정비에 힘썼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학문 중심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자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생활습성이 과학화되고 과학과 기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과학교육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시기 건립된 경남학생과학관이 대표적인 과학화운동의 일환이다. 80년대부터 점차 학문 중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생활 문제를 다루도록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져 90년대에 이르러 '과학·기술교육 진흥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장기 계획이 추진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과 함께 시작된 2000년대의 과학교육은 학교급간의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기본 개념과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종합적인 탐구 학습 활동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발명교실, 다양한 지역대회, 과학 실험실 현대화 사업 등의 과학교육 육성 사업을 펼쳤다.

지금의 과학교육은 기존의 기초 과학뿐만 아니라 발명교육, 융합인재교육(STEAM) 등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천도 이에 발맞춰 탐구 및 참여 중심의 과학교육과정 운영과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특

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해 환경교육 특구를 운영하며 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학교내 무한상상실 운영이나 미래교육을 위한 메타버스교육도 전개하고 있다.

6) 수학교육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수학교육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실용주의의 영향으로 생활 수준의 문제가 제시되었던 제1차, 수학 본연의 계통을 중시했던 제2차, 범세계적인 수학교육의 현대화 운동으로 인해 학문중심으로 바뀌었던 제3차 등 초기 수학교육은 급변하는 모습이었다. 제4차부터 제6차까지는 각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수학교육에 바탕을 두고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수정을 거듭했고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 단계형 수준별 수학교육과정이 완성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수학교육의 비전을 ‘창의적 인재 육성, 함께 하는 수학교육’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토론·탐구·체험 중심의 수학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사천에서도 2015년 대방초등학교가 지역 수학체험센터로 지정되어 ‘찾아가는 수학 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혁신을 위해 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수학나눔학교, 학생수학동아리, MATH BOX 운영, 수학축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7) 영재교육

영재교육은 1980년대를 시작으로 9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 시범학교와 영재반을 운영하며 시작하게 되었다. 경남의 영재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창조적 인재 육성’을 중·장기 목표로 하여 도입 단계(2001~2007), 내실화 단계(2008~2012), 정착 단계(2013~2017)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하였다. 각 영재 교육원마다 특별한 영재학급을 운영하며 분야별 적합한 인재를 조기 발굴, 육성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영재담당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지원과 수행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페스티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사천영재교육원의 국제캠프와 창의융합캠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8) 정보교육

우리나라 정보화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육 정보화 사업은 1단계(1997~2000) 교단선진화장비 구축, 정보기기 및 시설 설치 완료와 2단계(2001~2005) ICT활용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 이후

정보 통신 기기 발달에 영향을 받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사이버가정학습, IPTV 활용 교육서비스 등의 활성화와 스마트기기 발달에 따라 스마트교육 활성화에 집중되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은 물론 스마트앱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이르러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더욱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컴퓨터의 작동에 대한 이해가 아닌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경남교육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 개발과 스마트 단말기 아이북의 보급으로 정보화 교육을 이끌어나가고 있고 이에 발맞춰 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교육을 특색과제로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9)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개념은 학문 지도와 직업 지도를 통합하는 교육의 관점으로 1970년대 초 등장한 것이다.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자료를 개발하고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90년대에 이르러서야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입시 및 과열 과외 해소의 한 방안으로 진로교육을 도입하며 체계적 진로교육, 진로교육센터 설치, 실업교육 강조, 위탁교육 실시 등의 정책이 전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사항에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진로교육을 명시하며 진로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초등 전 교과 지도, 중학교 도덕과 기술·가정 과목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하나로 도입되며 활성화되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경남에서도 2017년 「경남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진로체험, 현장견학 및 대학진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맞춤형 진로 설계를 위한 ‘진로 변경 전입학제’도 실시하고 있다.

10) 직업교육

직업교육은 실업교육이라는 용어에 뿌리를 두고 80년대 초부터 사용된 용어이다. 60년대부터 경제발전과 맞물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70, 80년대에 이르면 실업 기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학 협동 체제를 강화하게 된다. 공업계 학교 및 전문학교를 지역사회의 산업에 맞게 육성하고 교육과정을 실습 위주로 바꾸어 조

정했다. 이 시기에 사천농업고등학교도 경남자영고등학교로 개편하고 농업분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실업교육이라는 명칭을 벗고 직업교육으로 거듭나며 특성화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최고의 기술교육 중심 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로는 삼천포공업고등학교가 있어 사천 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취업지원센터 운영이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직업교육은 지속적인 발전 중이다.

11) 체육교육

체육교육의 정책은 교육 사조의 변화에 따라 경험과 생활 중심의 제1~2차 교육과정 시기, 운동이라는 용어 정립과 평생 체육과 야외활동의 교과내용을 강조한 제3~4차 교육과정 시기를 거쳐 점차 운동에 대한 개인적 능력에 초점을 두며 제7차에 이르러서는 열린 교육, 평생교육, 개인 중심 교육의 체육으로 발전되었다. 운동기능 중심보다는 신체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며 학생 건강 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비전 1080계획’에 따라 체력 향상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생활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천교육지원청에서도 다양한 리그 운영을 지원하고 7560+ 운동, 뇌를 깨우는 아침 스포츠, 스마트스포츠 등 건강체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12년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처음 시작한 생존수영교육이 점차 확대되어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체육교육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12) 보건교육

제1~2차 교육과정 속 보건교육은 체육 과목에 통합되어 응급처치 개념으로 축소되기도 했으나 제3차 교육과정, 즉 80년대에 접어들며 보건교육이 공식화되어 표기되었다. 제4~5차 교육과정기에는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며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였고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양호교사의 보건학습 지도 참여, 비만도 검사 실시,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등 보건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범교과학습으로 재량활동 시간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편성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최근 보건교육의 중점시책은 ‘학생건강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 ‘학교 내 환경 위생 유지 관리’,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보건실 현대화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등이다. 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방역관리 네

트위크를 운영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미세먼지 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13) 급식교육

현재의 급식 형태가 완성된 것은 2003년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 급식을 완성하면서부터 전면 급식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60~70년대까지 제빵급식의 형태로 제공되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식, 부식을 자체적으로 조리·제공하도록 하였다. 1998년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급식이 실시되었고 2003년에 비로소 전면 급식이 완성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 영양교사 선발로 급식학교에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급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로 직영 급식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에 발맞춰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정책을 내놓았고 2011년부터는 전 시·군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2020년 기준 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 예산 분담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환경에 발맞춘 채식급식 ‘다채롭데이’ 운영,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전통장류 체험비 지원, 중금속 및 GMO 없는 안전 급식,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14) 국제교류 및 다문화교육

국제화,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보 교환 및 공유,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1997년 이후부터 경남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인근 국가 및 영어권 국가와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행정 및 교사, 학생 교류가 추진 중이다. 단위 학교에서도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 학교와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실생활 체험 및 문화 체험 등 다양하게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노동력 부족으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와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 여성의 수가 급증하면서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기인해 다문화 이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6년 말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68%에 다다르고 있어 그에 따른 교육정책도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경남교육청에서는 공교육 진입 원스톱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한국어 표준교재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대학생 멘토링 운영, 다국어 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고 2016년

개소한 ‘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천에서는 남양초등학교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선정되어 내실 있는 다문화교육을 펼치고 있다.

15) 교육복지

교육복지의 개념이 확장된 것은 1997년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종합대책 1997~2001’을 수립하면서부터이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이 이때 이루어졌고 2000년 이후 빈곤층 확대와 소득의 양극화문제로 인해 교육복지는 정책적으로 많은 정비가 되었다. 그 영역은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경남은 2004년 경남교육복지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꾸준히 매년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세부 추진과제로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사교육 경감 대책이 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1996년 교육부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대책으로 이어오던 방과후 교육활동에 교육복지 구현 등의 다양한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2004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후 방과후학교는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지원센터 및 위탁 운영 지원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천교육지원청에서도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학습준비물 및 교복, 체육복,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학습복지 사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작은 학교 정책 강화,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16) 평생교육

광복 이후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꾸준히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60~70년대에 이르러 새마을교육 운동이나 방송통신대학의 발족으로 사회교육은이 출범되었다. 하지만 평생교육 차원의 사회교육에 대한 기반의 마련은 80년대에 시작되었고 이후 90년대에는 학점은행제도, 독학 학위취득제도 등의 평생교육 제도 구축이 이루어졌다. 1999년 「평생교육법」의 제정으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정립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발전기에 접어든다.

이에 발맞춰 경남교육은 평생학습 축제 및 박람회를 개최해 평생교육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24개의 평생학습관(경남교육청 소속 지역도서관)을 지정하여 평생학

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다.

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예비 학부모 대학 운영, 거점학부모 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실용영어 프로그램, 검정고시 시행 지원, 학교 시설 지역민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